



기상청 예보관을 꿈꾸며 부산지방기상청 인턴 체험 수기

설레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공존하는 월요일 아침, 드디어 부산지방기상청에 인턴으로 참여하게 되는 하루이다. 과연 어떤 분들이 맞이해 주실까? 나를 반겨주는 주실까? 혹시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여러 생각들이 나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드디어 첫 만남

드디어 오전 9시,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문을 열고 담당 주무관님을 찾으며 남해해성고등학교에서 인턴 체험을 하게 된 조예린이라고 말하자 모든 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잘 왔다.”라는 인사말을 건네어 주신다.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막냇동생같이 맞이해 주셔서 괜한 걱정을 한 것만 같았다. 주무관님의 안내로 김남욱 부산지방기상청장님과 면담을 마치고 부산기상청의 직원 및 조직을 소개받으며 다양한 부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예산의 편성, 집행까지 맡고 있는 기획운영과, 기상예보 및 자료 수집, 분석, 관리하면서 기상에 관한 상담 업무까지 맡고 있는 예보과, 그리고 기상관측, 예보, 전산, 통신장비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관측과, 마지막으로 지역 장기예보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양기상정보를 수집하며 분석하는 기후서비스과로 분류되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이해와 감사

점심식사를 마치고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기상연구원을 꿈꾸는 나에게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 해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평소 일기예보가 맞지 않다고 기상청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예보관님께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보관의 업무와 기상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다.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예보업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

떠오르는 얼굴들

설레며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오늘 하루를 되새겨 보니 여러 얼굴들이 떠오른다. 옆집 아저씨같이 푸근하게 나를 반겨주시던 부산지방기상청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던 황보현 주무관님, 그리고 아침의 긴장으로 지갑을 두고 온 나에



조예린
남해해성고등학교

게 돈을 빌려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던 이송이 주무관님, 선생님같이 꼼꼼하게 설명해주시던 인상 좋으시던 예보관님, 홍보관 설명과 친언니같이 진로 코칭을 해주시던 너무너무 고마웠던 주무관님, 그리고 각 부서의 여러 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구덕산 레이더센터

다음날 아침, 구덕산 레이더센터를 방문하였다. 아주 큰 돔 안에 약 8.5m크기에 480km까지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레이더가 전국에 10개 정도가 있으며,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이유는 산 때문에 전파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주도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좌우로 하나씩 있다고 한다. 이후 이곳을 나와 대청동에 있는 기상관측소를 방문하여 관측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상현상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미래의 예보관의 꿈을 위해 다가가는 시간

이번 체험을 통해 기상청이 하는 일이 날씨를 예보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지진을 예측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며, 화산이 폭발할 위험, 해일이 일어날 확률과 규모, 그리고 우주의 날씨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보람찬 인턴 체험이었다. 또 이를 수행하시는 예보관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자신이 담당한 지역만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관측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다른 지역의 예보관들과 협의하여 예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력과 분석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명절이 되면 더욱 바쁜 일정을 보내는 기상청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는 하루였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번 인턴체험으로 느꼈던 마음을 가슴에 담고 미래 예보관이 되는 나의 꿈을 향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